익명의 봉투 속 자비, 추위 녹이다

익명의 남성, 아름다운동행서 소외계층에 무주상보시

매월 사무국 찾아 기부금 전달 동행, 익명후원자 증가 밝혀 해피빈 등 온라인 기부 눈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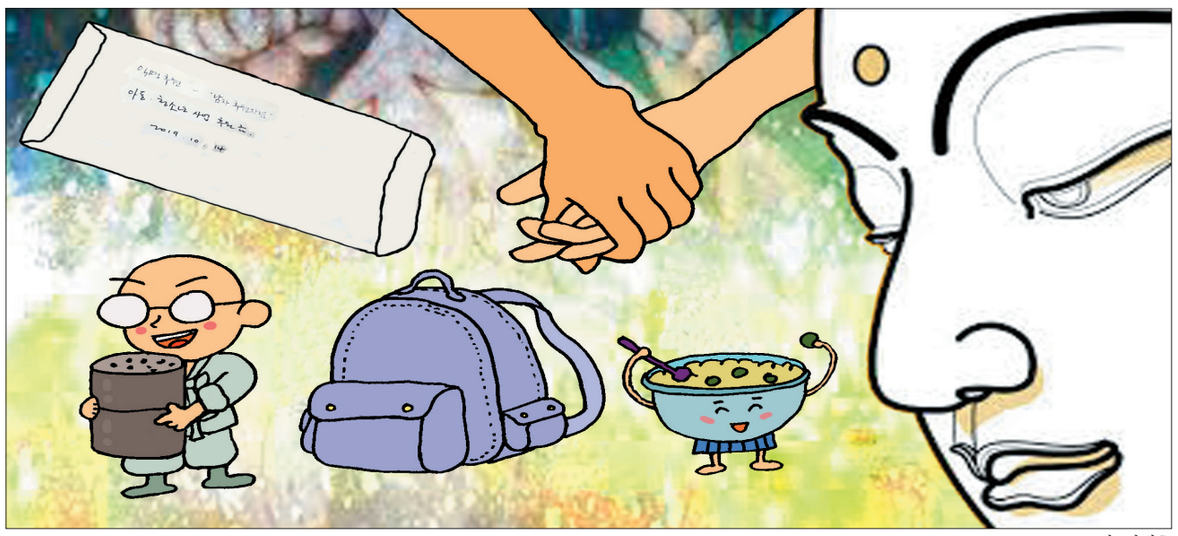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추운 겨울을 앞두고 이름없는 자비보살들의 활동이 훈훈한 감동을 전한다. 불교계 대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에는 최근 작은 사연글이 올라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성이 보시금을 전달하고 간 사연이다.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은 연말이면 더욱 바쁘게 돌아간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업무에 매진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동행의 사무실 문이 조용히 '끼익' 하고 열렸다. 동행 사무실 직원은 '이 시간에 사무실에 방문할 분이 없는데 누구지?' 하고 입구로 나갔다. 그 곳에는 어떤 한 남성이 서 있었다.

동행 직원은 처음 보는 이였기에 인사를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오시라' 고 말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극구 사양하며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동행 직원이 "이게 뭔가요 선생님?"하고 묻자 그 남성은 "가난한 아이들,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써 주세요"라고 말했다.

동행 직원이 이름을 물어봤지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 써 주세요"라는 말만 재차 남긴 채 이 남성은 뒤돌아 사무실을 나갔다.

동행에 따르면 이날 보시 이후 이 남성은 매달 한차례씩 조용히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을 찾고 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은 말과 함께 보시금이 담긴 봉투를 전하고 있다. 11월 9일에도 이 남성은 사무실을 찾아 '가난한 아이들,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써 주세요' 라고 문구를 쓴 봉투를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런 후원자들로 인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한 남자 분. 이 분으로 인해 저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동행이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들은 동행의 후원자님들께서 만들어나가는 일들입니다. 저희는 그저 후원자님의 대리인으로서, 부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일꾼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동행에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동행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양질의 지원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익명 기부자 증가, 기부온도 뜨겁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올린 사연 외에도 최근 익명 기부가 증가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후원계좌로 이체되는 후원금 증가 속에 익명 후원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동행 최현웅 주임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지만 입금시 '연탄나눔', '아름다운동행' 등으로 후원해주고 계신다. 상을 내지 않는 무주상 보시"라며 "최근에는 온라인 익명기부도 활성화되고 있다. '네이버 해피빈' 을 통해 후원하는 익명의 기부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지원사업 '책가방 보내기' 의 경우 모금글 게시 9일 만에 해피빈으로 270여만 원이 모였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동 청소년 영양지원 '해피콘 옥수수죽' 사업도 매월 평균 후원율 103%를 기록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은 "우리 사회에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변의 소외계층, 그리고 나아가 아프리카 주민 등 지구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주저없이 후원금을 내주는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서 "마음 같아서는 사무국으로 꼭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의 말씀이라도 전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그저 마음만으로 감사함을 느낄 뿐이다. 그 분들이 전해오는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게 아름다운동행을 이끌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광동학원 발전사 봉정법회 열린다

광동학원, 11월 26일 광동중서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일면, 이하 광동학원)은 11월 26일 오후 2시 남양주 광동중 다목적실에서 '〈광동발전사〉 봉정식' 을 봉행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광동발전사〉는 광동학원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담고 있다. 특히 현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이 부임한 이후 종립학교로서 정체성을 찾고 지역 명문학교로 발돋움한 과정과 현재 학교 현황을 수록했다.

더불어 광동학원의 설립 역사와 위기 때마다 삼보정재를 희사해 학교를 살리고 지역인재를 양성한 봉선사와 교구 주요 사찰의 기여도 반영했다.

1946년 봉선사 큰 법당에서 개교한 광동학원은 운허 스님의 불교 자비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사찰과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학교를 일궜다. 창립 74주년이 되며 광동학원 산하 3개 학교는 지역 명문으로 성장했다.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은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의 적극적 지원과 학원 운영 주체인 법인 및 250여명의 교직원 및 4만 6000여 동문과 지역민들의 협력을 통해 100년 역사의 광동을 한국의 명문학원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신도조직 확대 위한 연수회 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권역별 교구신도회의 유기적인 연결망과 신도조직 확대를 위한 확대임원연수를 개최한다.

중앙신도회는 최근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신도조직 확대임원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도조직 확대임원연수회는 중앙신도회와 종단, 신도조직간의 유대관계 개선 및 공감대 구축을 위한 것으로 권역별 교구신도회의 네트워크 및 불자 경제인 교류, 신도멤버십 체계화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수회에는 중앙신도회와 교구신도회, 신도단체 주요 임원 1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단체별로 4명까지 동참 가능하다.

연수회서는 다양한 교육과 함께 신도조직 활성화를 위한 토론 및 발표가 진행된다. 중앙신도회는 "교구신도회의 실질적인 활동력을 배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회를 열고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공불련 창립 19주년 기념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 이하 공불련)은 11월 9~10일 김상규 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불자회 회원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해사에서 '창립19주년 기념법회 및 대의원총회' 를 봉행했다. 육화원(은해사 템플스테이)에서 봉행된 기념법회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 혜국 스님, 김상규 공불련 회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하 공불련 사무총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2000년 공불련의 설립과정과 그간의 봉사활동과 법회진행 등 활동내용을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도농상생'으로 풍성한 사찰 장터

조계사 '육농이 나르샤' 장터 11월 9~11일 개최…높은 호응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판매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조계사(주지 지현)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건강하고 저렴한 먹거리 보급과 도농소통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육농이 나르샤 직거래 장터' 를 개설했다.

이번 '육농이 나르샤 직거래 장터' 는 강진, 영암, 의성, 함평, 해남, 화천 6개 군이 참여해 30여 대표 상품을 한 자리에 모은 지역과 도심사찰의 상생 장터다. 불자와 시민들은 멸치, 다시마, 참기름부터 버섯 생강, 식초, 조청, 차 등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매했다.

조계사는 2017년부터 매월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 6개군과 경내에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다. 조계사에 따르면 신선하고 질 좋은 상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어 장터 개장을 기다리는 신도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육농이 나르샤 장터는 그동안 산별적으로 해왔던 지역 장터를 한번에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정기근 함평군 햇맘잡곡 대표는 "다른 시군이 준비한 것을 보고 참고가 많이 됐다"고 말했다.

김현성 씨는 "지난해보다 많은 상품을 살 수 있어 좋은 것 같다"며 "주기적으로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육농이 나르샤 장터에 대해 주지 지현 스님은 "조계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했던 6개 군이 오늘 함께 모여서 장터를 여니 큰 축제를 벌이는 것 같다"며 "농촌 살리기 운동에 조계사뿐 아니라 많은 도심사찰들이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인재원 불교경전·조사어록 강좌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11월 18일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 동안거 기간 동안 '제12차 불교경전과 조사어록 대강좌' 를 연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 1층 교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불교경전, 조사어록 강좌는 '법화경' '유마경' '아미타경' '간화결의론' 을 교재로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 자비사 주지 대해 스님, 박희승 불교인재원 이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엄상호 이사장은 "불교인재원은 지금가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중도정견을 세워 실천하는 생활참선 입문코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의 교재인 '간화결의론' 은 조사선 공부에서 화두 참선으로 가는 돈오돈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도정견을 통한 생활 실천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1661-1108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20년도 남경 의대(중의학)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11월 29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